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동향	14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부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24시간 운영 본격 가동
- 울산항, 해상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베이두 기술을 활용한 항만 자동화 실현
- 미국 LA항, 터미널 효율 향상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제도 도입
- 모로코 탕헤르 메드항,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모래, 정부의 '21년 골재공급 규모 확대로 일부 지역 연안 반입 증가 전망
- 철광석, 중국, 서아프리카 및 서호주 등의 해외 철광산 개발 계획 발표
- 자동차, '20년 코로나19 위기 속 선방, '21년 회복세 속 경쟁 격화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항 서컨 배후부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¹⁾

- ▶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물류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4년까지 인천항과 부산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함
- 인천항에 먼저 1개소를 건립하고 부산항의 경우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부지(연면적 10만 2천㎡)에 총 사업비 940억 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건립할 예정임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란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시설 및 운영시스템 등을 통해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설비의 오작동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 예방이 가능한 차세대 물류센터임
- ▶ 기존의 물류센터가 단순히 화물을 보관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화물량이 증가하고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물류센터 독자 건립 및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물류센터로 건립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항의 경우 중소 물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물동량 확보와 중·소 물류업체 동반성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기존의 물류센터 대비 피킹(Picking)²⁾ 작업시간은 15%,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며 생산성은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한편,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항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힘

② 체인포탈(Chain Portal)구축 사업, '항만 디지털화 우수사례'로 선정³⁾

- ▶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항만협회(IPA)는 부산항 체인포탈 구축사업을 항만 디지털화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항만 디지털화 우수사례 보고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항만으로 소개함
- 해당 보고서는 항만의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 항만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며 부산항 외에 로테르담항, LA항, 앤티워프항, 함부르크항 등이 선정됨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19.),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111&mCode=MNI445\(2021.01.22.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111&mCode=MNI445(2021.01.22. 검색))

2) 출고할 상품을 물류센터의 보관장소에서 꺼내는 작업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2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116&mCode=MNI445\(2021.01.22.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dx=26116&mCode=MNI445(2021.01.22. 검색))



- 부산항만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부산항의 역대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PCS, Port Community System)의 발전단계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체인포탈 구축사업을 소개함
- 체인포탈은 ITT 운송 시스템, 터미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빅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만 이해관계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
- 선사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토대로 컨테이너 수송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터미널 운영사 및 운송사는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효율적인 야드 운영 및 배차 계획 수립이 가능함
- 한편, 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 항만을 대상으로 부산항의 IT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부산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2) 인천항

① 신항 I-3단계 임시활용부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⁴⁾

-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I-3단계 '컨'터미널 임시활용부지 활용을 위한 1차 입주 기업 선정 사업계획 평가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 3개사를 선정함
- 공사는 향후 임시활용부지를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공컨테이너 등 화물 장치장으로 운영할 예정임
- 후보 기업들의 사업계획 평가는 항만·물류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담당 하였고 주요 평가 지표로는 입찰가격(20점), 사업능력(25점), 화물규모(30점), 고용계획 및 환경·안전(25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B-1(16,685m²)구역 우련국제물류(주), B-2(16,685m²)구역 (주)피앤비쉬핑, C구역(42,839m²) (주)선광 등 3개사이며, 향후 인천항만공사는 대상기업들과의 협상을 거쳐 '21년 2월까지 임대차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임

② 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감면 확대⁵⁾

-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고객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국제여객 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
- 공사는 인천항 이용객 주차장 관리 운영지침의 시행에 따라 기존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이 밖에도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여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임신부 탑승차량도 포함 시켰으며, 다자녀 가정 기준도 완화시켜 향후 2자녀 가정부터 50%의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 받게 될 예정임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04.),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88&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1.01.23.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88&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1.01.23.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06.),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9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1.23.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39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1.23.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최초로 24시간 운영 시작⁶⁾

☀ 컨부두 3~1단계, 야간에도 화물 반·출입 작업 진행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3-1단계 컨테이너 부두에서 24시간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발표함
-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지난 11월 SM상선광양터미널(SMGT)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이 통합되어 현재 KIT(2-2단계)와 GWCT(3-1단계) 2개 터미널이 운영 되고 있음
- 이번 24시간 운영은 GWCT가 SMGT의 인력을 승계한 후, 인력교육 등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실시함
- 항후 항만관련부지에 컨테이너 검수·세척·수리장 등을 확충 운영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임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최초로 24시간 운영체계가 개시됨에 따라 화물 반·출입 작업이 어려웠던 점심시간 및 야간에도 부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여 상하차 시간 단축 등 항만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② 여수광양항만공사,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⁷⁾

☀ AI 기반의 지능형 항만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시스템(A.I.G) 선제적 구축 및 운영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정부 4차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항만구역 내 무사고에 기여하고자 AI 기반의 지능형 항만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힘
- AI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형 항만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시스템(AIG: Artificial Intelligence Guard)은 항만근로자의 부두 출입시 비접촉으로 측정된 체온데이터를 안면인식기술로 구분하여 익명으로 저장함
- 항만근로자별 음주에 따른 체온변화와 대상자의 행동 패턴(비틀거림, 과도하게 느린 보행속도 등)을 인지함으로써 초소근무자에게 요주의 알림을 전달하고 항만안전 지원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작업자의 안전한 귀가 및 선원의 귀선을 지원함
- 또한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결과를 딥러닝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안면인식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확한 구분과 탐지를 가능하게 하여 항만작업장 출입인원(선원 포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됨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07.),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0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35&category= (2021.01.29. 검색)

7)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1.14.),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0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38&category= (2021.01.29.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이동식 수소기반 육상전원공급장치 개발 협약 체결⁸⁾

☀ 울산항만공사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들과 함께 세계 최초 수소기반 이동식 선박육상 전원공급장치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벌서비스, 한국조선해양(미래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울산산업단지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이동식 선박육상전원 공급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임
- 수소기반 이동식 선박육상전원공급장치 개발에 있어서 항만공사와 현대중공업그룹의 협력은 세계 최초 항만내 수소에너지원 도입과 함께 연관 산업 가치창출 모델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② 울산 해상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⁹⁾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한수원은 스페인 해상풍력 전문회사인 OW오프쇼어, 울산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금양산업개발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해당 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OW오프쇼어가 울산 해상 약 72km 배타적경제수역에 500MW 3개단지, 총 1.5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 OW오프쇼어는 현재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사업성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 외에도 울산항 인근에는 세계적인 여러 해상풍력 전문기업들이 진출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또한 동남권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4.6GW) 개발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한수원 측도 우리나라 동해안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음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0.12.31.)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1945\(2021.01.22.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1945(2021.01.22. 검색))

9)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뉴스(2020.12.16.)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2021.01.22. 검색\)](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2021.01.22.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경기도, 평택·당진항 평택지구와 평택역을 연결하는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 추진¹¹⁾

경기도는 평택·당진항 평택지구와 평택역을 연결하는 총 30.3km의 철도를 건설하여 서해선·경부선과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하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할 계획임

- 단선철도 건설 사업은 '15년 2월에 '1공사구역(평택~숙성)'이 개통됐으며, '2공사구역(숙성~안중)'은 '17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
- '3공사구역(안중~포승)'은 노선이 바다로 이어져 부지매립 후 사업이 가능하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평택·당진항 평택지구 철도건설 부지매립 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는 철도건설 부지 총 696만 2천㎡(항만시설용부지 251만 3천㎡, 항만배후단지 444만 9천㎡)에 대한 세부 매립계획이 포함됐으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배후수송망 조기 확충, 철도인입 시설 위치와 개발 시기 확정 추진 등이 반영됨

11) 경기도청 보도자료(2021.01.17.),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221&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0\(2021.01.28. 검색\)](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221&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0(2021.01.28. 검색))

6) 대산항

① 롯데케미칼, 화재사고로 멈췄던 대산공장 재가동¹¹⁾

작년 3월 화재사고로 멈췄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10개월 만에 재가동되며 올해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음

-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 재가동에 맞춰 3년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전 사업장의 안전환경 기준을 글로벌 상위 수준으로 재정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3년간 안전작업관리 시스템과 설비의 이상 징후를 분석·진단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설비 예지정비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공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안전환경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업장 안전환경 전문 인원을 2배로 확대하고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임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매출의 20%를 책임지는 곳으로 지난해 생산 중단에 따라 8년만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년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절반 이하를 기록함
- 연매출 3조 원 규모의 대산공장 재가동으로 롯데케미칼 측은 당장 올해부터는 실적 반등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1)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동향(2021.01.04.), [http://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029/page/1/key/0/keyword/%EB%8C%80%EC%82%B0/term_id/6/per_page/9/v_mode/user\(2021.01.22. 검색\)](http://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029/page/1/key/0/keyword/%EB%8C%80%EC%82%B0/term_id/6/per_page/9/v_mode/user(2021.01.22. 검색))



7) 포항항

① 포항-울릉, 신규 카페리 사업자 공모¹²⁾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에서 '울릉 사동항' 구간을 운행할 신규 대형 카페리선 운영 사업자 공모를 실시함

- 신규 사업자 공모 기간은 '21년 1월 25일까지이며, 공모 기준은 총 톤 수 8천 톤 이상, 전장 190m 미만의 카페리 선박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선정 이후 1년 이내에 항로에 정상 투입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함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공고 마감 이후 10일 이내에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인력투입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45점, 선박 확보 및 운항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55점으로 구성되며,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점수를 확보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
- 향후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고 카페리선이 정식 투입되면 포항-울릉 구간의 여객 이동편의 개선 뿐 아니라 택배화물의 원활한 운송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1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1.04.), <https://pohang.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531&boardKey=7&menuKey=435&currentPageNo=1>(2021.01.27.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강원지역 '20년 여객선 이용객 전년 대비 60.7% 감소¹³⁾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년 강원지역을 운항하는 연안 및 국제 여객선의 이용객은 19만 980명으로 '19년(48만 5,388명) 대비 6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안여객 이용객의 급감('19년: 45만 1,369명 → '20년 19만 980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동해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운항하던 국제여객선 수송실적은 '19년 일본 불매운동과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악화를 겪은 선사들의 폐업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1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1.18.),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772&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 (2021.01.26. 검색)

9) 목포항

① 목포북항 제2진입도로 개설 추진¹⁴⁾

☞ '목포해양대~서해어업관리단'을 연결하는 910m 구간 진입도로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2월 중 착수할 예정임

-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이번 설계비 11억 원을 포함, '24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 원이 투입될 계획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시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방침임
- 현재 북항 배후부지 진·출입은 북항교차로 이용이 유일한 노선이며, 진입도로 신설시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1.2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1316&bbsIdx=30992>(2021.01.28. 검색)

10) 군산항

① '21년부터 등대 설치 및 관리에 드론 활용 예정¹⁵⁾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1년부터 선박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등대 설치 및 관리 업무에 항공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금까지는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수중 암초나 간출암 등에 등대를 설치할 경우 사전 현장조사를 위해 배를 타고 직접 접근하였지만 현장에 도달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등대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음
- 또한 태풍 등 기후 악화로 등대가 파손되어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조사 시에도 안전사고 노출 위험성이 높은 등 원활한 업무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등대 설치 및 관리업무 현장에 항공드론을 구매하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등대설치 및 관리 업무의 드론 활용은 등대 시설물 균열 및 파손여부 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1.20.),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0964\(2021.01.26. 검색\)](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0964(2021.01.26.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베이두 기술을 활용한 항만 자동화 실현¹⁶⁾

- ✎ 중국은 베이두 위성시스템을 처음으로 항만 자동화에 적용하였으며 효율성은 20% 향상시키고 비용은 10% 절감을 이뤄냄
- 텐진항 자동화 시범지구 컨테이너 터미널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베이두는 미국의 GPS와 더불어 중국이 개발한 글로벌 내비게이션 네트워크 중 하나임
- ✎ 현재 중국의 교통시스템은 베이두 기술로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갖춘 차량은 698만 대 이상이며 1,300여개의 공공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 해당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본 내비게이션, 메시지 통신, 검색 기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② 칭다오항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잇는 신규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 개설¹⁷⁾

- ✎ 칭다오항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하여 인도를 잇는 신규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 3개를 개설함
- 말레이시아 노선은 Evergreen, 베트남은 Wan Hai Lines/Interasia, 인도는 Wan Hai Lines/Interasia/Zim/Korea Marine Transport가 서비스할 예정임
- ✎ 최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였으며, 산둥 항만 그룹은 해당 체결로 인해 산둥성 항만이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한편 신규 서비스 개설로 인해 현재 산둥항만 그룹은 305개의 국제 컨테이너 서비스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년 14억 톤 이상의 화물과 1,30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기록함

16) Hellenic Shipping News(2021.01.20.),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utilizing-beidou-for-container-port-automation/#\(2021.01.22.검색\)](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utilizing-beidou-for-container-port-automation/#(2021.01.22.검색))

17) Seatrade Maritime News(2021.01.21.),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three-new-container-services-connecting-qingdao-southeast-asia-india\(2021.01.22.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three-new-container-services-connecting-qingdao-southeast-asia-india(2021.01.22.검색))



2) 아시아

① '20년 일본발 미국 수출 컨테이너 실적 18.1% 감소¹⁸⁾

☞ '20년 12월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월 대비 9.6% 감소

- 미국의 데이터 분석기관인 데카르트 데이터마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년 12월 일본의 미국향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한 4만 6,604TEU를 기록함
- '20년 기준 일본발 미국향 수출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은 53만 1,314TEU로 전년 대비 18.1% 감소함
- 항만별로 살펴보면 도쿄항이 20만 9,054TEU(전년 대비 -8.0%), 나고야항 10만 9,922TEU(전년 대비 -13.5%), 고베항 7만 7,740TEU(전년 대비 -4.4%) 등임

② 인도, 이란, 우즈베키스탄은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만 공동 운영을 위한 키포프 미팅 개최¹⁹⁾

☞ 3개 국가는 올해 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해사 정상회의에서 인도와 함께 항만 공동 운영 협의를 시작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의 지난 정상회담에서 차바하르 항만 홍보를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발언에 이은 후속 논의로서 오만지역 해협의 지역 연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회의에서 각 주체들은 무역 및 환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지역이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란 3개 국가의 장관이 본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기로 하였으며 1월 회의에서 인도가 '차바하르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인도는 현재 개발을 마친 차바하르 항만에 이미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화물 운송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여 미국의 이란 제재 대상에서 면제를 받게 되었음

- 과거 트럼프 정부 당시 차바하르 항만은 이란의 핵협상 철회로 인해 심각한 운영 차질을 빚고 있었으나 이번 바이든 정부는 지역 안정을 위해 이란에게 외교 무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번 계기로 인해 차바하르 항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란 외무부도 우즈베키스탄 이 차바하르 항만을 환적항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임
- 또한, 이번 협의로 이란 내 무역기업들과 경제 공동체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며 우즈베키스탄 외에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항만 사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도와 더불어 이 지역 국가들과 향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18) JIFFA(2021.01.22.), <https://www.jiffa.or.jp/en/news/entry-6883.html> (2021.01.29. 검색)

19) Hindustan Times(2020.12.14.),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india-iran-uzbekistan-hold-first-meeting-on-joint-use-of-chabahar-port/story-YWtef36CdFdY1yz8kqlvAM.html> (2021.01.26. 검색)

① 대만선사 완하이(Wan Hai), 신규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및 컨테이너 5만 개 구입에 7억 7백만 달러 투자²⁰⁾

대만의 3대 해운사인 완하이社は 신규 컨테이너선 12척 발주와 5만 개의 컨테이너 구입에 약 7억 7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12척의 13,013TEU급 컨테이너선은 일본의 Nihon Shipyard사에 발주했으며 척당 선가 4,7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완하이는 전 세계적인 컨테이너 수급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자 약 5만 개의 컨테이너를 중국 CIMC(China International Marine Containers)로부터 1억 4,170만 달러에 구입할 계획임

20) Seatrade Maritime News(2021.01.27),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wan-hai-splashes-out-707m-12-new-boxships-and-50000-containers>(2021.01.29. 검색)

3) 미주

① LA항, 터미널 효율 향상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제도 도입²¹⁾

LA항은 매월 컨테이너 터미널의 '회송시간(Turnaround) 단축 차량'과 '반입·반출 일시처리(Dual Transactions) 차량'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 트럭 회송시간을 5~20% 개선하는 터미널은 컨테이너 TEU당 50센트에서 2.75달러 사이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됨
- 터미널 평균 회송시간이 지정된 달에 35분 이하일 경우, 컨테이너당 최고 3달러를 받게 되며 호출 트럭의 절반 이상이 1회차 운행에 반입·반출을 동시에 할 때, 적재 TEU당 40센트에서 1.40달러 사이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됨
- LA항 항만위원회는 이 같은 신규 인센티브제도를 승인했으며, 신규 도입되는 인센티브제도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첫 해 인센티브 규모는 75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터미널 운영사가 트럭 이동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인센티브 시행으로 항만 혼잡이 감소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LA항 수출입 컨테이너의 약 3/4는 트럭을 통해 처리되는데, 최근 몇 달간 수입 컨테이너가 증가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불균형이 발생했으며 터미널 내 적체가 심화되고 트럭 체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다만, 이번 인센티브 시행으로 트럭의 터미널 진입·진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1회차 운행에 반입·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트럭이 증가하면서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21) Port of Los Angeles 보도자료(2021.01.19.), https://www.portoflosangeles.org/references/2021-news-releases/news_011921_truck_incentives(2021.01.28. 검색)



4) 유럽

① 포르투갈 시네스(Sines)항,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년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13.0% 증가²²⁾

☀ 포르투갈의 시네스(Sines)항의 '20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44만 2천TEU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또한 '20년 시네스(Sines)항의 액체벌크 화물량은 2,1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소폭 증가했으며, 이중 원유 물동량은 830만 톤, 석유 정제품은 730만 톤임
- 시네스항에서 처리된 LNG 물동량은 400만 톤으로 이는 포르투갈 LNG 총 수요량의 90%에 해당됨

22) Seatrade Maritime News(2021.01.22.),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port-sines-reports-13-jump-2020-container-volumes>(2021.01.26.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뉴질랜드, 항만적체현상 심화²³⁾

☀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 항들의 잠정적인 섯다운(shut-down)으로 대미(美) 수입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뉴질랜드 주요 항들의 화물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로스엔젤레스(LA) 및 롱비치(LB)의 주요 4개 항에서 약 700명 이상의 부두 노동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항만운영 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The 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현재 LA항 근로자들은 긴급 백신접종을 받고 있으며, 하역 기기 및 인력부족으로 선박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항만들의 섯다운 기간이 향후 장기화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뉴질랜드 주요항들의 대미 수출입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임
- 기존에는 매월 미국발 뉴질랜드행 해상운송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수출입 화물 병목현상 심화로 '21년 1월말 기준 양국 간 단 1척의 선박운송 실적만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뉴질랜드 오클랜드항의 경우 공급사슬상의 문제가 심화되어 특정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최대 2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23) Port Technology(2021.01.23.), <https://www.stuff.co.nz/business/124036680/us-port-shutdowns-could-affect-nz-exports-freight-group>(2021.01.24. 검색)



6) 아프리카

① 모로코,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²⁴⁾

☀ '21년 1월 모로코 당헤르 메드(Tanger Med)항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인 'The New Tanger Alliance Terminal(TC3)'이 개장하여 정식 운영을 개시함

- TC3 터미널은 Marsa Maroc, Contship Italia, Eurogate International 및 Hapag-Lloyd의 합자 회사인 Tanger Alliance의 총 투자금 2억 1천만 달러가 투입되어 총 18개월의 기간 동안 공사를 거쳐 완공됨
- 개장 직후인 '21년 1월 1일 ULCS(Ultra Large Container Ship)급의 신규 컨테이너선이 입항함
- 터미널 규모는 총 면적 36만㎡, 안벽길이는 800m, 수심은 18m이며, 22기의 RTG(Rubber-Tired-Gantry) 크레인 및 총 8기의 STS(Ship-To-Shore) 크레인을 보유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컨'선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임
- 향후 터미널 운영시설 및 운송인력 배치의 정상화 작업이 최종 완료되면 연간 총 하역능력 150만 TEU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24) Port Technology(2021.01.1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ew-tanger-alliance-terminal-fully-operational-after-receiving-first-vessel/>(2021.01.24. 검색)

The New Tanger Alliance Terminal(TC3) 전경



자료: Port Technology(2021.01.1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ew-tanger-alliance-terminal-fully-operational-after-receiving-first-vessel/>(2021.01.24.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²⁵⁾

① '20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의 '20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9%, 0.7% 상승하였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 공산품과 농림수산물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총 지수가 하락함

- '20년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1,095.13원으로 전월 대비 1.9% 하락함

(단위: %)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구 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0.09	'20.10	'20.11	'20.12(p)	'20.09	'20.10	'20.11	'20.12(p)
총 지수	0.0	-2.4	-0.5	-0.1	-5.9	-6.2	-4.6	-5.4
농림수산물	-1.8	-1.4	-0.9	-1.8	-4.2	-1.8	-0.7	-5.0
공산품	0.0	-2.4	-0.5	-0.1	-5.9	-6.2	-4.6	-5.4
섬유 및 가죽제품	-0.4	-2.1	-1.7	-1.3	-4.4	-4.9	-5.4	-7.4
석탄 및 석유제품	-7.0	-2.2	4.4	10.9	-37.7	-36.8	-32.2	-27.6
화학제품	2.9	0.1	1.8	-0.1	-8.1	-5.9	-1.3	-1.3
제1차금속제품	0.7	-1.8	1.3	0.7	-3.8	-2.5	2.4	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4	-3.6	-1.4	-1.3	-0.6	-1.5	-0.5	-2.3
전기장비	0.0	-2.2	-1.7	-1.1	0.0	-1.6	-2.2	-3.9
기계 및 장비	-0.9	-2.5	-2.0	-1.3	-1.7	-3.6	-4.5	-6.2
운송장비	-0.6	-3.0	-2.2	-1.3	-1.0	-3.0	-3.8	-5.2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1.1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

25)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1.1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



② '20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0.2% 하락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의 '20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1.0% 하락하였으나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이 같은 기간 7.8%, 9.9% 상승하면서 총 지수가 상승함

- '20년 12월 국제유가는 두바이 유가 기준 배럴당 49.84달러로 전월 대비 14.8% 상승함

(단위: %)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구 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0.09	'20.10	'20.11	'20.12(p)	'20.09	'20.10	'20.11	'20.12(p)
총 지수	-1.1	-2.2	0.0	1.8	-11.3	-11.2	-10.3	-10.2
원재료	-3.5	-1.9	3.9	6.9	-29.1	-27.2	-24.4	-21.0
농림수산물	4.1	0.3	-1.6	-0.9	1.1	1.3	-0.3	-2.3
광산품	-4.7	-2.1	4.8	7.8	-32.9	-31.1	-27.9	-24.1
중간재	-0.2	-2.4	-0.9	0.8	-5.5	-6.1	-5.3	-6.0
석탄 및 석유제품	-2.9	-2.8	0.1	9.9	-25.2	-24.9	-23.2	-20.4
화학제품	0.6	-1.7	-0.8	-0.2	-9.0	-8.8	-7.7	-8.7
제1차금속제품	0.5	-1.7	0.0	1.8	-0.5	-0.1	2.1	2.9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0.0	-4.1	-1.5	-1.4	-0.2	-2.8	-3.1	-4.7
전기장비	-0.7	-2.9	-2.4	-1.8	-4.6	-6.2	-6.4	-8.7
기계 및 장비	-2.0	-2.8	-2.0	-0.8	-0.5	-2.0	-2.4	-4.0
자본재	-0.8	-2.6	-1.9	-0.7	2.0	-0.3	-0.7	-2.4
소비재	-0.6	-1.6	-1.6	-1.0	-3.1	-4.0	-5.4	-6.9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1.01.1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lid=10062372&menuNo=200690&searchWrd=%EC%88%98%EC%B6%9C%EC%9E%85%EB%AC%BC%EA%B0%80&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2021.01.25. 검색))



2) 양곡

① 중국, 유통과정에서 연간 3,500만 톤의 곡물 폐기, 코로나19 위협으로 식품 보안법 도입 시기 조정 예상²⁶⁾

☞ 세계 최고의 곡물소비국인 중국은 곡물 유통과정(저장, 운송, 가공)에서 낙후된 저장 시설, 물류장비, 가공 기술 등으로 인해 매년 3,500만 톤의 곡물이 폐기되고 있음

- 중국 전국인민 대표자회의(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조사 결과보고서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곡물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수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 기반시설의 개선, 스마트 곡물창고 개발을 권고하고 있음

☞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곡물 손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되는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식품보안법(Food Security Law)의 시행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6) 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정보, http://www.krei.re.kr:18181/board/newdata/view/wr_id/5750(2021.01.26. 검색)

3) 시멘트

① '20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감소세 기록²⁷⁾

☞ '20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0.7p 하락한 84.6p를 기록함

- 국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20년 9월 이후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12월에는 전월 대비 약 0.7p 하락함
- 동절기인 12월에는 공사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수 증가폭이 전월 대비 약 2~7p 증가 수준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냄
- '20년 12월 신규 공사수주와 건설공사 기성 BSI 모두 기준선인 100을 초과하여 물량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등이 부동산 경기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1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약 5.2p 하락한 79.4p로 전망되고 있으며, 통상 1월에는 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01.05.),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59>(2021.01.23. 검색)



4) 모래

① '21년 골재공급량 규모 확대 예정²⁸⁾

- ☀ '21년 건설투자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골재수요를 약 2억 5천만m³로 추정하였으며, 골재공급량은 수요 대비 약 5.3% 높은 2억 6천만m³ 수준으로 산정함
- 최근 확정된 2021년 골재수급계획에서의 국내 골재수요량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준임
- 특히 올해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한 해 건설경기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음
- '21년 골재원별 수요는 모래 1억 1,659만m³, 자갈 1억 2,630만m³로 전망되었으며, 지역별 골재 수요로는 수도권이 41.0%로 가장 높고 뒤이어 경상권 26.3%, 충청권 14.7%, 전라권 10.9% 순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천연골재 부존량 감소를 고려하여 산림골재 및 부순골재의 활용과 함께 순환골재 및 대체골재도 활성화 할 예정임
- 또한 지역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모래 생산이 부족한 지역은 서해EEZ 및 웅진·태안군 연안모래 반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28) 한국건설경제신문(2021.01.14.), [http://www.cnews.co.kr/uhtml/readPop.jsp?popMode=no&idxno=202101141007159430461\(2021.01.23. 검색\)](http://www.cnews.co.kr/uhtml/readPop.jsp?popMode=no&idxno=202101141007159430461(2021.01.23. 검색))

5) 석탄

① '20년 12월, 전력수급 차질 없이 석탄발전 감축 추진²⁹⁾

- ☀ 최대 17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상한제약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12월 1일부터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중이라고 발표함
- 12월 한 달 동안 석탄발전 최대 17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최대 46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석탄발전기 20~25기를 가동 정지와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지난해 12월에 비해 약 36%(426톤) 수준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18.12월)과 비교해서는 약 60%(1,139톤)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01.11.),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702&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2021.01.29. 검색\)](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702&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2021.01.29. 검색))

12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단위: 톤)

구분	'18.12월	'20.12월	'18년 대비 저감량
미세먼지(PM2.5) 배출량	1,904	765	△1,139
	'19.12월		'19년 대비 저감량
	1,191		△4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01.11.),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702&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2021.01.29. 검색\)](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702&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2021.01.29. 검색))

6) 철광석

① 철광석 가격, 최고 기록 경신³⁰⁾

- 📌 20년 1월 18일,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분광 가격은 톤 당 약 174.07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함
- 최고가 경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20년 총생산량이 10억 5천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10억 톤을 돌파한 사실이 지목됨
- 철강뿐 아니라 '20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도 11억 7천만 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한편 향후 중국의 철강 수요는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21년 중국의 철광석 가격은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 회복으로 상승세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② 중국, 해외 철광산 개발 계획 발표³¹⁾

- 📌 '20년 12월 31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안정적인 철강 생산을 위한 해외 철광산 개발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25년까지 안정적 철강 생산을 위해 약 1~2개의 해외 철광산을 개발할 계획임
- 주요 대상국으로 서아프리카 및 서호주에서의 대규모 철광석 생산 프로젝트를 가속화 할 계획이며,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캄보디아 등 주요 철광석 부존 국가와의 협력도 진행할 예정임
- 이 밖에도 기존 철강업체들의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세계 최대 수준의 철강업체를 육성하여 '25년까지 중국 내 상위 5개 업체의 세계 철강 생산량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3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1.18.),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1.23. 검색)

3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1.18.),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1.23. 검색)



7) 기타광석

① 미달러 약세 및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주요 광물 가격 상승³²⁾

🌊 미달러 약세 및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동’ 수요확대,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의 기대감 등으로 ‘동’ 가격 상승세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지속 및 기준금리 동결로 미달러 약세 지속 및 중국의 전기동 수입수요 증가,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의 낙관적 전망으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
- 이에 따라 전기동 평균가는 전월대비 9.8% 상승한 톤당 7,75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3년 2월 이후 약 7년 10개월 내 최고가격을 경신함
- 특히 공급측면에서 남미지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산차질 및 페루 광산(Las Bambas)의 도로봉쇄에 따른 정광수출 차질 등이 ‘동’ 가격의 상승압력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됨

🌊 유럽발 변종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약세 및 미국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아연 가격 상승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지속 결정에 따라 미 달러 약세 및 미국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유럽발 변종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연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함
- 또한 12월 말 LME(런던금속거래소) 정련아연 재고량이 20만 2,225톤으로 전월 말 대비 8.3% 감소함에 따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12월 아연의 평균가격은 전월대비 4.2% 상승한 톤당 2,782달러를 기록함

🌊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따른 세계 경기의 낙관적 전망과 더불어 미 달러 약세 및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니켈 가격 상승

- 중국의 경기개선,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따른 세계 경기의 낙관적 전망 및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로 인한 미 달러 약세로 위험자산 투자선호가 확대됨에 따라 니켈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
- 더불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칼레도니아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차질 이슈가 제기되면서 가격 상승압력이 심화됨
- 이에 따라 니켈의 12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6.4% 상승한 톤당 16,807달러를 기록함
- 다만 니켈의 재고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수급이 공급과잉을 나타내고 있어 가격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됨

32)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1.21.),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1.01.23.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1.01.23. 검색))



8) 목재

①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 발표³³⁾

산림청은 '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 톤을 기여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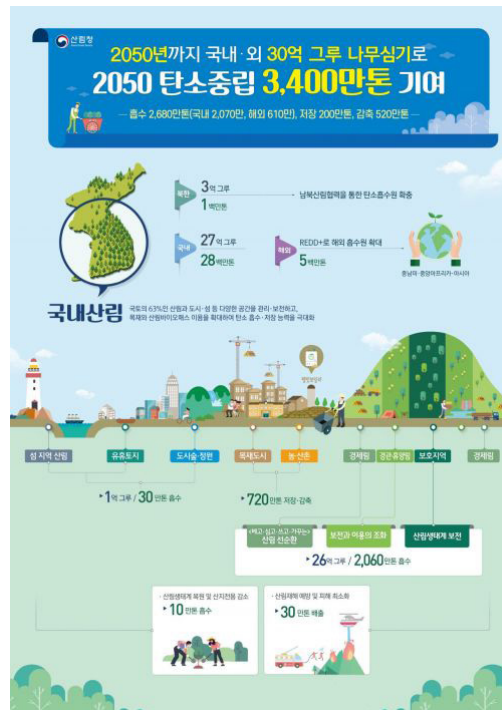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 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으며, '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임
-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마련함

4대 정책 방향과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고, 탄소저장량을 확보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할 계획임

- 4대 정책 방향은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등임
-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화석에너지의 산림바이오매스 대체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으로 전망됨

33) 산림청 보도자료(2021.01.20.),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154431&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1.28.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154431&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1.28. 검색))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



자료: 산림청 보도자료(2021.01.20.),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154431&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1.28.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154431&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3&searchTitle=title&searchConte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1.28. 검색))

9) 고철

① 철강업계, 작년 철스크랩 수입 물량 20년 만에 최저 기록³⁴⁾

관세청은 '20년 철스크랩 수입량이 439만 톤을 기록하여 '19년 645만 톤 대비 32% 감소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 철스크랩을 수입하는데 '20년 수입 물량이 '19년의 390만 톤 대비 239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계 각국의 자동차 공장 가동이 멈춘데 이어 각국의 인프라 구축 사업도 더디게 진행되어 철스크랩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 지난해 지속적인 수입 물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철스크랩 수입량이 38만 4천 톤으로 11월 대비 25% 증가하여 수입량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올해 스크랩 수입량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23만 8천 톤으로 11월 대비 14.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수입한 물량은 6만 5천 톤으로 전월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주요 제철사 중 하나인 현대제철은 전기로에 투입하는 철스크랩 물량이 늘어나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제조업 업황 개선시 철스크랩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34) 글로벌이코노믹(2021.01.25.),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125110218433ce58317c16_1/article.html?md=20210125144852_R\(2020.01.26.검색\)](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125110218433ce58317c16_1/article.html?md=20210125144852_R(2020.01.26.검색))

10) 철재

① '20년 11월 국내 조강생산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축과 건설투자의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함³⁵⁾

'20년 11월 국내 조강생산량은 576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함, 11월 기준 누적 조강생산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6,116만 5천 톤을 기록함

- 열간압연강재의 경우 수요 산업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생산(+1.1%) 및 출하(+1.7%)가 증가세로 전회되었으며 냉연강재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가전 품목의 국내 판매 회복세로 전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1.4%)함
- 도금강재는 '20년 하반기 들어 내수 중심의 판매 회복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생산 및 출하가 전년 대비 각각 1.3%, 5.2% 증가하였으나, 지속되어 왔던 수출 부진으로 누적 생산과 출하는 여전히 전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강관은 에너지용 강관 중심으로 대미 수출량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생산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출하는 동기간 2.2% 감소하였음

35) 한국철강협회, 「월간 철강보」 1월호, [http://www.kosa.or.kr/statistics/KOSAZine/book202101/\(2021.01.26.검색\)](http://www.kosa.or.kr/statistics/KOSAZine/book202101/(2021.01.26.검색))



11) 자동차

① '20년 코로나19 위기 속 선방, '21년 회복세 속 경쟁 격화³⁶⁾

- ☞ 자동차산업협회는 '20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평가하고 '21년 산업 여건 및 전망을 분석한 '2020년 자동차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 ☞ '20년,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부의 적시 방역과 지원, 업계 내수 공급 확대 전략 등으로 자동차 업계는 선방했으며 산업생태계가 보존됨
 - 상반기 수출급감시 업계의 내수비중은 49%까지 확대됐으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자동차 제조업 고용의 경우, 1월: 37만 8천 명 → 10월: 37만 4천 명)함
- ☞ 다만, 국외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생산이 정상화하고 중국의 해외진출 본격화로 '21년 글로벌 시장은 경쟁 격화될 전망이다
 - '21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86만 대, 내수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182만 대, 수출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한 234만 대로 전망됨
 - 생산과 수출 모두 기저 효과로 '20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19년 수준인 240만 대, 395만 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시장은 규제 강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회복에 제약이 발생할 전망이다
- ☞ 수출 회복에 대비한 생산유연성 제고, 내수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미래산업 재편 대응을 위한 부품업체 산업전환 지원이 필요함
 - 노사관계 안정화, 유연근로제 활용 제고를 통해 생산 유연성을 제고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노후차 교체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산업 재편을 위한 금융, R&D, 인력 등의 지원도 필요함

36)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0.12.28.),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68&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1.28. 검색)



12) 잡화

① '20년 11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173억 8,2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15.6% 증가한 101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함³⁷⁾

☞ 11월 기계 수출은 일반기계업(-12.1%)을 제외한 전기기계업(+28.2%), 정밀기계업(+13.5%)등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함

☞ 11월 기계 수입은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금속 제품업종의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한 4억 9,800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침

37)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월호(2021.01.13.),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1.01.26. 검색)

'20년 11월 기계산업 업종별 품목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산업 전체	17,382	4.5	10,128	15.6
일반기계업	4,101	-12.1	2,929	14.4
전기기계업	3,791	28.2	1,957	20.8
정밀기계업	1,623	13.5	2,262	30.2
수송기계업	7,064	4.2	2,483	8.3
조선	954	40.3	91	0.8
금속제품업	802	0.6	498	-10.0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월호(2021.01.13.),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1.26. 검색),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대한석유협회, 세계 석유수급 현황 및 '21년 전망에 관한 해외보고서 발표³⁸⁾

☞ OPEC 월간보고서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를 '20년 8,999만b/d 대비 증가한 9,589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년 대비 590만b/d 증가를 전망한 요인으로 인프라투자 증가 및 건설/산업 활동 증대와 석유화학용 수요가 특히 중국, 미국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함
- 반면 수요 감소 요인으로는 연료 효율 향상과 지속적인 연료대체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석유 수요전망으로 OECD 국가들이 4,486만b/d, 비OECD 국가들은 5,104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38) 대한석유협회 글로벌 오일 뉴스레터 (2020.12.31.), http://www.petroleum.or.kr/ko/meterial/meterial6.php?option=&keyword=&category=&id=2055&page=1&mode=re ad&b_type=(2020.01.26. 검색)



OPEC 세계 석유 수요 전망

(단위: 백만 b/d)

구분	'20/'21년 세계 석유 수요 전망							
	2019	1Q20	2Q20	3Q20	4Q20	2020	2021	증감
총 OECD	47.75	45.44	37.56	42.49	43.56	42.27	44.86	2.59
└ 미국	20.86	19.66	16.38	18.79	19.98	18.70	19.97	1.27
총 비OECD	52.02	42.27	45.02	48.67	49.91	47.73	51.04	3.31
세계 전체	99.76	92.71	82.57	91.16	93.47	89.99	95.89	5.90

자료: 대한석유협회 글로벌 오일 뉴스레터(2020.12.31.), [http://www.petroil.or.kr/ko/material/material6.php?option=&keyword=&category=&id=2055&page=1&mode=read&b_type=\(2020.01.26. 검색\)](http://www.petroil.or.kr/ko/material/material6.php?option=&keyword=&category=&id=2055&page=1&mode=read&b_type=(2020.01.26. 검색))

공급측면에서 비OPEC국가들의 석유공급량은 '20년 6,267만b/d에서 '21년 6,352만 b/d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발표함

- 미국의 총 석유류(가스 포함)생산량은 '20년 1,766만b/d에서 '21년 1,796만b/d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중 미국 셰일원유 생산량은 740만b/d에서 741만b/d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에서의 OPEC 원유수요 전망치는 '20년 2,220만b/d에서 '21년 2,717만b/d로 497만b/d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 OPEC은 OPEC의 가스를 포함한 비전통 석유류 생산량이 '20년 513만b/d에서 '21년 521만b/d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경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1. 29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